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배우 이범수 드라마 첫 출연

배우 이범수(사진)가 데뷔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한다.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27일 "이범수 씨가 내년 1월부터 방송할 SBS 수목극 '외과의사 봉달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면서 "이는 1990년 데뷔한 이범수 씨의 첫 드라마 출연작"이라고 밝혔다.

'외과의사 봉달희'(극본 이정선, 연출 김형식)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과 의사와 환자가 겪는 고뇌 등을 다루게 된다.

이범수는 '메디컬 드라마'를 표방하는 이 드라마에서 전문 지식과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전문의 안중근 역을 맡았다. 환자에 대해 감정이 앞서는 외과 레지던트 봉달희(캐스팅 미정)가 그와 만나면서 진정한 의사로 성장하게 된다. 첫 촬영은 12월 초.



이범수(사진)가 데뷔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한다.

웃찾사 '콩팥 댄스'로 인기몰이 호남대생 개그우먼 **박보드레**

예쁜 그녀, 망가지다 그리고 뜨다



그녀는 예뻐다, 그리고 웃겼다. 개그우먼 박보드레(29)가 예뻐장한 외모와 달리 온몸으로 웃기는 '콩팥 댄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콩팥 댄스'는 유아하게 등장한 여성이 갑자기 "부드러운 콩의 느낌~ 부드러운 팥의 느낌! 콩콩콩 팥팥팥!"이라고 외치며 격렬한 댄스를 추는 것이다. 호남대 다매체연극영상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그녀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인기코너 '맨발의 코뿔마'에서 열연하고 있는 박보드레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녀의 파격 변신. 웃찾사에서 열연하는 모습(왼쪽)과 골룸으로 분장한 모습.

서울 출신으로 서울 토박이인 그녀가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연기' 때문이었다. 전국에 몇 안 되는 연극학과를 찾다 보니 다매체연극영상학과가 있는 호남대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사투리도 낯설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수한 사투리와 따뜻한 점이 '갑나게' 좋아지더라고요." 혼자 자취를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았다. 어느 날 한 번은 후배가 놀러왔는데 후배를 보고 한 남자가 대문까지 따라와 행패를 부렸다.

"주인집 아들이 무술을 하던 분이셨는데 '아따, 격정마시요잉'하면서 남자를 쫓아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매일 '위험할지 모르니까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걱정해주셨죠."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면서 연기자의 꿈도 커져 갔다. 워크숍으로 하는 창작뮤지컬을 비롯해 '데미제라블'에서 환타스 역을 맡아 열연하면서 실력을 키웠다. 그러던 그가 개그로 눈을 돌린 것은 교수님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는 내숭쟁이였는데(웃음), 교수님이 말을 재밌게 잘 하니 개그맨 시험을 보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제 속에 숨어있던 끼를 깨틀어 보신 거죠."

지난 2001년 SBS공개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그동안 무명의 설움도 맛보야 했다.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못해 무대에서 서지 못하고 동료들이 잘나가는 모습만 바라봤다. 리포터, 케이블 TV 리포터, 연극 등을 하며 기회를 노리던 중 6년 전 '콩쥐팥쥐'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콩팥 댄스'가 제작진의 눈에 띄어 무대에서 선보이게 됐다.

어린 후배들도 많은데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그녀의 개그가 웃기는 이유 중 하나는 멀쩡하고 교양있는 여성이 망가지는 엉뚱함이다. 얼굴이 예쁜 개그우먼이라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던 만큼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제가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제가 하는 스타일의 개그가 저에게 맞는 개그라고 생각했어요. 온몸으로 웃기는 거죠. 망가지는 게 창피했다면 시작도 안 했죠."

'사모님' 김미려, '사랑의 카운셀러' 강유미와 함께 개그우먼 전성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보드레. 앞으로는 연기와 뮤지컬, 전문 MC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싶다는 꿈을 숨기지 않는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박보드레"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그녀는 일에서만큼은 욕심많은 20대 여성이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가요계 뭉쳐야 산다? | '임재범+테이' '김종국+SG워너비' 등 '듀엣 디지털 싱글' 잇따라 발표 인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침체된 가요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생존 전략 키워드다. 임재범+테이, 김종국+SG워너비 등 선후배 가수가 뭉쳐 듀엣 디지털 싱글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김종국·SG워너비·엠투엠이 부른 '언터처블(Untouchable)', 이들에 바이브가 가세해 발표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은 새로운 시도로 꼽히며 디지털 음악시장의 '효자 상품'으로 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임재범과 테이는 지난달 28일 디지털 음반 '겨울에(愛)'의 타이틀곡 '겨울이 오면'을 음악사이트 멜론과 도시락통을 통해 공개했다. 미디어 팀포의 록 넘버인 '겨울이 오면'은 작곡가 조우진과 작사가 강은경의 합작품. 김종국과 SG워너비가 듀엣한 디지털 싱글 '바람만 바

람만'은 김도훈·민명기가 함께 만들고 윤사라가 노랫말을 붙였다. 현재 음악사이트 멜론 '오늘의 톱 100' 1위, 도시락 '핫 100' 데일리차트 1위, 벅스 '오늘의 톱 100' 1위 등 정상을 싸늘이했다. 또 SG워너비의 용준과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가인이 부른 '머스트 해브 러브(Must Have Love)'도 순항하고 있다. 이밖에도 거미와 김현철이 부른 디지털 싱글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요'와 러브홀릭 지선과 클레지피 알렉스가 함께 입을 맞춘 '너무 아픈 이말' '사랑해'도 가요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노래 잘하는 가수 화요비와 KCM도 현재 민명기가 작곡한 듀엣 디지털 싱글을 녹음하고 있다.



테이(왼쪽)와 임재범

10 BOX OFFICE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디피티드	9만6천700	34만8천
2	해비리기	8만5천	40만3천200
3	스텝업	3만7천500	13만3천200
4	플러쉬	3만7천	14만8천
5	악마는 프리디를 입는다	3만3천600	165만6천400
6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2만9천800	49만4천900
7	프레스티지	2만3천100	62만9천500
8	어느 멋진 순간	1만8천400	22만3천900
9	누가 그녀와 잤을까?	1만5천	40만1천
10	타짜	6천	679만8천

(단위:명) (자료제공:필름 21)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주몽	MBC	44.4
2	소문난 칠공주	KBS2	39.6
3	열아홉 순정	KBS1	38.2
4	황진이	KBS2	25.7
5	순간포착 세상에-	SBS	21.5
6	대조영	KBS1	21.5
7	개그콘서트	KBS2	20.8
8	연개소문	SBS	20.2
9	있을 때 잘해	MBC	20.2
10	해피투게더-프렌즈	KBS2	19.4

(단위:%)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괴물	드라마
2	기운의 부활	코미디
3	수퍼맨 리턴즈	SF
4	이연	액션
5	비열한 거리	액션
6	각설방	드라마
7	터미네이터 3	액션
8	독방전설	액션
9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멜로
10	카	애니메이션

(자료제공:씨네타운)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그녀가 울고 있어요	가비 엔제이
2	거리에서	성시경
3	소리쳐	이승철
4	리리리	세븐
5	까만 안경	이루
6	나쁜 사람	백지영
7	이이스크림	MC몽
8	머스트 해브 러브	SG워너비&브라운아이즈걸스
9	하고 싶은 말	김태우
10	레이디	신승훈

(자료제공:벅스뮤직)

세계 최고명문 **北京大學**에 입학하십시오.

미래의 "중국전문가"가 되십시오

1. 뛰어난 지도 교수 교육과정과 시설
2. 유망 분야인 경제학, 법, 의학, 공학 분야에 집중
3. 뛰어난 재정상태 덕분에 학비 면제
4. 교육 특화된 우수한 학비, 입학 지원

중국어학원 中國語學院

www.chinesechina.com

문의전화: 02-233-9582

미래 불안?

한의학이 뒤처지면 해를 입습니다!

고수형선, 대학선, 특강선, 촬영

사우스 베이 한의과 대학

www.southbay.co.kr

광주, 서울, 부산, 대전